

조선로동당은 선군혁명의 위대한 향도자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조선로동당은 장군형의 위대한 향도자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선군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해나가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혁명적열정을 찬배배로 높이아지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활짝 밝히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으며 원수님의 선군령도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을 비약의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된 때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의 신념과 혁명적열정은 찬배배로 높이아지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활짝 밝히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으며 원수님의 선군령도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을 비약의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어 이 땅위에 거어 이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1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조국과 혁명,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주제사상,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현명한 령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일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조조하고 령도하는 창조자이며 향도적력량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묶어세우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당의 현명한 령도는 천만군민의 생명선이며 혁명의 가치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가치, 선군의 가치높이 백전백승을 펼쳐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간고한 조선혁명의 전진과 승리의 행로에는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 력사적로에서 우리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대로 일색화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높은 령도예술을 지닌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령도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한 견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오늘날의 시대는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시대이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투쟁방식, 정치방식이다. 우리 당이 높이 들고나가는 사상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사상이고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혁명의 주력군도 인민군대이며 우리 당이 구현해나가는 혁명방식도 선군정치방식이다. 오늘날의 시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 거창한 사회적변화와 경이적인 사변들에는 선군혁명을 즐기게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비범한 령도의 자욱이 빛나고있다.

새해의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근거로 높이 휘날리며 위대한 당에 모든 운명과 미래를 건 것으로 말고도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철칙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당이 주는 것은 우리 문헌 및 법칙들이 우리의 승리를 영원불멸할 근대과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며, 이것이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당의 선군혁명 령도에서 끝없이 변형할 조국의 창창한 패업을 내다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선군혁명을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사상에 기초한 혁명의 령도는 인민대중의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 우리 당의 지도사상에는 선군혁명의 리론과 원칙,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과 혁명적도덕, 강성국가건설리론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지침들이 다 밝혀져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기에 우리 당은 사소한 로선상착오와 탈선도 없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 나가고있는것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된 때로 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혁명의 앞길에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나날이었다. 민족의 대국상이후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협과 제제봉쇄는 극도에 달하였고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에 과월기를 내리는 온갖 원수들의 모략책동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우주를 정복하고 강령한 전쟁역력을 다지며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았다.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만능의 보급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우리 당이 최근년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빛나게 구현해온것은 혁명적당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어떻게 승리에 이끌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귀감으로 된다. 천만군민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킨 병정의 승진포성과 문명강국건설의 창조열풍은 그대로 우리 당의 기상이고 슬결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공격속도로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일신시키고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거창한 창조적 변혁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과 전략은 선군혁명의 승리를 위한 고고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과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반동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할수 있었고 우리 조국은 천하제일강국건설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이 우리 혁명을 향도하기에 천만대중도 두렵울것이 없고 강성혁명의 찬란한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오늘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적신념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선군혁명의 주제를 찬배배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강철의 당이다.

혁명의 승리는 단결의 승리이며 가장 공고한 단결은 선군의 길에서 이룩될수 있다. 이것은 김일성조선의 100년사와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확증된 령리이다. 우리 당은 장구한 기간 수령, 당, 군대, 인민의 통일체인 선군혁명의 주제를 튼튼히 다지고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혁명의 길에서 지니는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뚜렷이 밝히고 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비상히 강화해온것은 우리 당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최대증대사였다. 총대혁명의 력사, 선군혁명단결의 전통을 세우고 세기를 이어 끝없이 빛내어나가고있는 여기에서 우리 당의 위대성이 있고 필승 불패성이 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 인민군대는 단결의 전형이다. 우리 당이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으로 내세우고있는 인민군대는 수령에 대한 충정의 일원단심에서도 최고이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에서도 최고이며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는데서도 최고이다. 차치한 바다 물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경에하는 원수님을 배배드리던 심약하여 군인들, 보름이 인 입당청원서를 가슴에 품고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해군군관, 세계일대급의 마시령스키장을 건설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의 맹세를 올린 인민군인들, 정신세계는 우리 인민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데오의 맨 앞장에 인민군대가 서있고 천만대중이 일심단결의 성세, 방패를 이루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선군혁명단결은 당과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힘있는 보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신념이 떨떠한 자들, 양분음위하는 자들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었다. 우리 당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붉은 칼로 단호히 쳐갈겨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에 의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순결성이 굳건히 고수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진만정으로 굳게 뭉쳐 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을 소리로 온 세상을 진감시키고있다. 순간을 살피고 경에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값없이 살고 한생을 바쳐도 오직 당과 승결을 같이하며 생사유명을 함께 하는 불개의 혼연일체, 이것이 수천만의 동지, 수억의 한대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당의 힘이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위력으로 인민의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인민의 리상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최고투쟁목적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민,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우리 당은 인민의 세기적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진군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 길에서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조국의 수호자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인민 군대는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에 마시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일떠서는 진족물들마다에는 우리 인민의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구상이 얼마나 웅대하며 그 실천투쟁의 개척자, 선구자가 어떤 전투적정단인가 하는것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우리 당이 바라는 창조적 높이는 인민의 요구와 지향이며 전진의 기상은 단숨에이고 당의 령도를 앞장서 만드는 기적과 혁신의 돌격부대는 인민군대이다.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혁명대오의 선구적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있기에 인민이 그려보는 모든 리상이 하나하나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리에 인민군인들은 이 창조한 《마시령속도》는 강성조선의 힘찬 대진군속도, 대비약속도로 되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군민동작전진기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속예 평양시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도를 갖추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우리 조국의 면모가 1-2년기간에 근본적으로 일신되고있다. 위대한 승리야말로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수로 내세우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과 군인기질을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한 전취물이다.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기마련이다. 선군혁명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뢰성은 인민을 위해 쌓은 업적으로부터 우리나오는 가장 숭고한 사랑감정이다. 세월끝까지 눈비바람 다 막아주고 인민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있고 오직 당만을 믿고 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해나가는 혁명적신념이 있기에 우리의 선군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2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선군혁명의 위대한 향도자로서 그 위업을 높이 펼칠수 있는 근본요인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전두에 높이 모시고있는 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품도를 갖추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습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인 중의 위인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가 지녀야 할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품목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시었다. 일찍부터 혁명의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고있고 근사예 정통하고 명징으로서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추신 백두산형의 장군이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선군혁명의 향도자인 우리 당의 존엄이자

경에하는 원수님의 백두의 기상이며 우리 당의 위력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력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예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사상리론의 영재이다.

령도자의 자질과 능력에서 중요하것은 사상리론적예지이다. 비범한 예지로 력사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멀리 앞을 내다볼을 아는 위인이라야 시대와 력사발전 을 옹계 주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령도의 계승의 시기는 혁명실현에서 해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리론문제들이 제기된 중대한 시기였다. 우리 당앞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밑에 걸은 자랑한 로정을 빛나게 총화하고 새로운 주제 100년대대진군을 어떻게 전진시켜나가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물음이 제기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우리 당과 혁명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지자』를 비롯하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련이어 발표하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백두산결성위업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로작들을 자자구구 깊이 연구하며 절세위인들의 유물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예지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비범한 선견지명이며 그 어떤 불합리한 문제도 단번에 바로잡아나가는 사상리론적예지이다. 불타는 열정으로 일관된 진취성, 이 세상의 모든 파악의 비밀을 독파해내는 사색성, 한결같은 꿰뚫어 보려는 투쟁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으며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명안도 내놓으셨었다. 농업과 공공업, 과학기술발전과 건축, 축산과 수산, 양어를 비롯하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해답을 주시지 않은 분야란 없으며 철의 료리와 주옥같은 명제들로 가득찬 사상리론적저술능력 또한 전후후 무한하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적예지에 의하여 끝바른 향로를 따라 나아가고있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에 정통하시고 그 어떤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예지는 만사물을 경란 시키고있다. 이 세상 현인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투쟁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엔 천만대중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수 있는 세련된 조직적수완과 특출한 령도예술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이 꺾을수도 당해낼수도 없는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믿음 이 낳는 힘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에 총직하게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퍼주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고 죽어도 원수님 품만은 절대로 떠날수 없다는 신념이 꼭 들어차있다. 이 신념, 이 의지가 조국수호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고 온 나라에 대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한 원동력도 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하는 방식은

총폭발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인민적령도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특출한 령도 예술로 한결의 혁신적인 불꽃을 온 나라에 일발화하여 거세찬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고 국토건설과 체육, 과학과 음악예술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일시에 성공의 열매들이 주렁지게 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모란봉악단공연과 같은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이 온 나라 천만군민을 새로운 투쟁대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인민군인들이 창조한 《마시령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는 뜻깊은 율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내세우고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강철의 명장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건설의 시련을 열어놓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고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강철의 명장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틀어쥐고나가는데 우리 당이 영원토록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빛을 뿌리게 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틀어쥐고 대원수님들의 당건설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돛이 되는 뜻깊은 율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창조모토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적령, 령도의 유일적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당대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갈도록 하여야 한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에하는 원수님에게서 당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우리 당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고 일심단결을 해치는 사소한 율해를 오소에 대하여도도 각성있게 대하고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견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령도자의 사상과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맹수가 되고 결사체가 되어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며 원수님에게서 주신 과업을 하늘이 무너진대도 제기일내에 완전무결하게 해제를 이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당과 혁명의 령연적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위력은 광범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있다. 우리는 장구한 력사적로정에서 형성되고 강화발전된 당과 군대의 혈연적뉴대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끈기있게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만군민을 한눈에 안고도 광명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누구나 경에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열혈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당사업을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는 완강한 실천가,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따르수 있는 경에하는 원수님 품을 떠나 순순히 따를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 같은 신념이다.

이 세상이 꺾을수도 당해낼수도 없는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믿음 이 낳는 힘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에 총직하게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퍼주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고 죽어도 원수님 품만은 절대로 떠날수 없다는 신념이 꼭 들어차있다. 이 신념, 이 의지가 조국수호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고 온 나라에 대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한 원동력도 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하는 방식은

가르쳐주시고 우리모두의 운명도 미래도 한눈에 안고 끝없이 광명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의 위대한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백승의 보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건설의 시련을 열어놓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고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 강철의 명장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틀어쥐고나가는데 우리 당이 영원토록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빛을 뿌리게 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틀어쥐고 대원수님들의 당건설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돛이 되는 뜻깊은 율해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창조모토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적령, 령도의 유일적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당대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갈도록 하여야 한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에하는 원수님에게서 당을 강화하여 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와 우리 당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저해를 주고 일심단결을 해치는 사소한 율해를 오소에 대하여도도 각성있게 대하고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견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령도자의 사상과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맹수가 되고 결사체가 되어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며 원수님에게서 주신 과업을 하늘이 무너진대도 제기일내에 완전무결하게 해제를 이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당과 혁명의 령연적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위력은 광범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있다. 우리는 장구한 력사적로정에서 형성되고 강화발전된 당과 군대의 혈연적뉴대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끈기있게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만군민을 한눈에 안고도 광명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누구나 경에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열혈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당사업을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는 완강한 실천가,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따르수 있는 경에하는 원수님 품을 떠나 순순히 따를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 같은 신념이다.

이 세상이 꺾을수도 당해낼수도 없는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믿음 이 낳는 힘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에 총직하게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퍼주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고 죽어도 원수님 품만은 절대로 떠날수 없다는 신념이 꼭 들어차있다. 이 신념, 이 의지가 조국수호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고 온 나라에 대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한 원동력도 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하는 방식은

과학기술로 조국의 미래를 안아오시는 위대한 스승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해의 총진군 대로의 맨 앞장에 나섰다.

당시 마련해준 과학기술분야의 날개를 활짝 펴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평평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박차를 가한 미더운 그 모습에 온 나라 인민이 믿음과 기대를 안고 뜨거운 고무격려를 보내고있다.

희망찬 올해의 첫 기술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쳐물리치며 주제과학기술의 거대한 위력을 가슴벅차게 펼쳐온 공지 높은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승리를 내다보는 뜻깊은 이 시작은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심장으로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모두의 긍지와 행복도 있고 원수님의 평도를 높인 과학기술성파로 받드는 길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 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미래!

한자한자 새겨볼수록 위대한 과학기술중시의 세계가 숨뉘어 안겨온다.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안으시고 따뜻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끝없이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맡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끝없는 흥모와 해묵을 담아 오홀로 당보에는 한상의 사진전원을 정중히 모시였다.

사연깊은 사진전원을 우러르는 우리의 귀전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제 101(2012)년의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미래상에서 떠져나온 감격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나.

과학기술중시에 애국이 있고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숭고한 뜻을 담아 《미래상점》이라고 그 이름도 지어 주시고 친히 상점마크와 간판도안까지 보아 주신 위대한 스승, 미래상점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몸소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상점이라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부채하루하루 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 되셨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상점의 운영준비상태와 상업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으신 은정에 대하여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들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가 민족의 대극상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제일먼저 영웅메달을 달아주도록 하신 고은공기영웅의 개척자도 있었고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이 주는 박사로 내세워 주신 저열탄소첨가제의 개발자도 있었다.

현대적인 봉사시설들과 편의조건이 완비하게 갖추어진 미래상점에서 줄줄이 흐르는 눈물속에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봉사를 받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떠치는 심장의 고백은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국가 과학원 중앙 벡터 연구소를 현지지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주제 102(2013)년 10월

젓어있었고 불같은 충정으로 뜨거웠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고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다시 뵈었습니다!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받들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과 가슴에 깊이깊이 스며들어 최첨단들과의 진구마다에서 성공의 열매를 맺어 안아 왔다.

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주제 101(2012)년 12월 12일 민족의 빛과 기상을 안고 우리의 첫 과학기술실용위성이 우주에 날아올랐고 국방력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국방과학의 첨단이 돌파되었다. 은 나라가 민족의 존엄과 흥분을 떨친 과학기술성파에 대한 격경과 충분을 들끓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슬기롭고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당기발이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에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 주신것으로 하여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그야말로 하늘땅에 넘치였다.

성스러운 우리 당의 붉은 기발에 펼쳐진 평등자와 과학기술진사들사이의 혼연 일체의 그 화폭은 정녕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이요 최상최대의 특전, 특혜였다.

하긴만 그대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하여 또 어떤 사랑의 구상을 하고계시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살림집건설을 이처럼 중시하시며 세면과 간재물 비롯한 자재와 설비문제도 수시로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다 물어주시었다. 그리고 여러차례나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살림집을 질적으로 건설하여 큰일을 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금방씩에 앉히고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세심한 관심속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를 갖추어 갔던 그 이름도 유명한 온하 과학자거리의 새 집들을 선물로 받아안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렇게 웅장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대로 호화를 뽐내는 집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금방식, 사회주의부귀영화 한사람한사람이 그처럼 귀중한 때에 인민군대와 사회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직접 파견해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지금은 과학으로 발전하는 시대이다. 과학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는것은 당의 요구이다. 매개 단위를 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집행하는가 하는것을 이번엔 건설하는 살림집의 질을 놓고 평가 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살림집건설을 이처럼 중시하시며 세면과 간재물 비롯한 자재와 설비문제도 수시로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다 물어주시었다. 그리고 여러차례나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살림집을 질적으로 건설하여 큰일을 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금방씩에 앉히고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세심한 관심속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를 갖추어 갔던 그 이름도 유명한 온하 과학자거리의 새 집들을 선물로 받아안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렇게 웅장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대로 호화를 뽐내는 집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금방식, 사회주의부귀영화 한사람한사람이 그처럼 귀중한 때에 인민군대와 사회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세심한 지도속에서 통통거리에 땀방울이 무뎠던 세상에 돌도 없는 궁궐같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주인들을 만나보아도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내세우고 적극 우대해주어야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고 하시며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이 세상 만물을 통째로 안겨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젖은 격정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어찌 이룰뿐이라. 올해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짓고 다음해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지구와 경지 좋은 연평호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도 건설해 주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대학의 교정들과 온정과학자가 감격으로 설레이 고 누구나 부러움과 경탄속에 축복받은 주인공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였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국가과학원 잔디연구 분원과 중앙벡터연구소에 가본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시고 찾아오시어 과학자들이 울리는 감사의 인사도 받아주시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무뎠은 정에 귀중한

경지에 오르고 이 땅우에는 과학기술중시의 불길이 활활타오르도록.

지난해 11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린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감격스러운 감사를 드려였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에게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그이를 우러러 목매어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념에는 국경이 있고 당시 말하준 혁명진기가 있으며 조선로동당 기발이 펼쳐 휘날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다고 온 세상에 다시한번 약속히 선언하였다.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를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없는 넘넘인 강성부흥하는 우리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그 품속에서 키운 민족적지침을 바짝 배양로, 그 손길아래서 다지고다진 슬기와 재능으로, 그이만을 위해 강리 불태울 열정과 헌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과학기술기둥을 연세게 떠받들자.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본사기자 려 명 희

올해 총진군의 중요전선

올해 우리앞에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엔 주타격방향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서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쫓아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디.》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에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타격방향이 되는 전선들이 앞장에서 기세드높이 내달려야 모든 전선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 혁명과 건설전진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

올해 우리 당은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부문을 중요전선으로 내세웠다. 이 부분들을 서부터 혁신의 봉화가 타오르도록 하고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는것이 현 시기 우리 당의 의도이다.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에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먹는 문제가 제1차적인 요구로 나서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농사가 근본으로 된다는것이다.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지난해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이 기세를 늦추지 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신년사에서 농업에 주타격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체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빛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여있다.

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은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인민생활향상에서 먹는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인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는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올해에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첨단을 돌파하며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전진과학기술인력회의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 많이 건설할 때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날수 있다.

올해에도 건설부문앞에는 건설 투쟁과업은 방대하다. 올해신년사에는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고 인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중요대상건설, 살림집건설과 학술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문화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고 평양시와 도, 시, 군들을 사회주의선군으로 훌륭히 꾸리는것이 올해의 투쟁과업이다.

건설부문에서의 새로운 번영기이자 선군조선의 번영기이다. 신년사에 제시된 건설부문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때 우리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현실로 꽃피어가고 강성국가건설은 보다 큰 걸음을 내질게 될것이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을 돌파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는 오늘날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고 당의 의도대로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로 빛내이자는 과학기술부문의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의 비약과 혁신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각할수 있다. 올해에 우리 당이 과학기술부문을 중요전선으로 내세운 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올해에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첨단을 돌파하며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전진과학기술인력회의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 많이 건설할 때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날수 있다.

올해에도 건설부문앞에는 건설 투쟁과업은 방대하다. 올해신년사에는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고 인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중요대상건설, 살림집건설과 학술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문화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고 평양시와 도, 시, 군들을 사회주의선군으로 훌륭히 꾸리는것이 올해의 투쟁과업이다.

건설부문에서의 새로운 번영기이자 선군조선의 번영기이다. 신년사에 제시된 건설부문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때 우리

리 강 철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강추위를 가셔준 뜨거운 은정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나 뜻밖 에 잃은 절통함으로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잊지 못할 그해 12월의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태양의 품을 잃은 크 나큰 슬픔으로 하여 사람들도 모두가 12월의 강추위로 아랑곳없이 조의식장을 찾고찾아 한밤을 지새웠다.

인민행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면 12월의 눈보라속에서 열매를 새운들 가슴속에 맺힌 죄책감을 풀지 못한 인민의 마음이었다. 이런 인민의 건강을 위해 파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온 나라 강산에 비쳐 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시던 이기신 인민을 한몸에 안으시며 해당 일꾼들에게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4면체대형전광판이 설치되기까지

지난해 8월 어느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개건되고있는 평양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그날 경기장홀과 관람석을 보시고 개건부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경기 관람하기 위

주שי었다. 일꾼들이 조의식장에서 추운 겨울밤을 지새우고있는 인민들을 위하여 일별, 시간별교대로 현장에 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인민들이 추위에 떠는것을 보시던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하시며 호상을 서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장대책, 더운물보장대책 등을 세우도록 하여주시었다.

하여 조의식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발열불임피와 불뿔, 더운 사랑물공공을 비롯한 사랑의 특별조치가 취해지는 현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시던 이기신 인민을 한몸에 안으시며 해당 일꾼들에게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שי었다. 일꾼들이 조의식장에서 추운 겨울밤을 지새우고있는 인민들을 위하여 일별, 시간별교대로 현장에 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인민들이 추위에 떠는것을 보시던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하시며 호상을 서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장대책, 더운물보장대책 등을 세우도록 하여주시었다.

하여 조의식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발열불임피와 불뿔, 더운 사랑물공공을 비롯한 사랑의 특별조치가 취해지는 현실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시던 이기신 인민을 한몸에 안으시며 해당 일꾼들에게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שי었다. 일꾼들이 조의식장에서 추운 겨울밤을 지새우고있는 인민들을 위하여 일별, 시간별교대로 현장에 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인민들이 추위에 떠는것을 보시던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하시며 호상을 서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장대책, 더운물보장대책 등을 세우도록 하여주시었다.

그럼도 우리 식으로 잘 개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편의를 첫차리에 놓으시고 그러도 마음쓰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당반식책장이 생겨난 사연

지난해 9월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선 어느 한 집의 서재에 들어서시어 책상앞에 앉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뒤벽면의 큰 책장파 책상이 붙어있는 앞벽면 벽걸이 바라보시다가 손들어 앞벽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 당반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서도 교수준비와 연구사업을 하다가 뒤에 있는 큰 책장에 가서 책을 가져오는 것보다 늘상 보는 책들은 당반에 놓고 보는데가 더 편리할것이라고 하시며 당반식책장의 형성안을 그날중으로 빨리 완성하여 보고할데 대하여 동행한 일꾼들에게 이시었다.

이번에 해보고 좋으면 앞으로 살림집들을 설계할 때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가슴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처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당반식책장은 교원, 연구사들에게 사소한 불편이 있을새라 한가지라도 더 마련해 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그이의 천어비사랑에 의하여 생겨날수 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자

비 날론과 화학제품생산에서 련일 혁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뎌는 가슴에 받아안은 2.8 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증산의 불길음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비날론로동계급은 년초부터 카바이드와 가스소다, 염산, 농약,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학공업부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라 같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벽두부터 비날론과 화학제품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음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일군들과 대중속에 자자구구 해설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 일군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2.8 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 밑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화학공업기지에서 우리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성과에 의거하여 생산을 쭉쳐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겨울철생산조건에 맞게 설비, 장치들에 대한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석탄과 석회석을 비롯한 원료, 연료를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차 승무원들과 함께 화물열차를 타고 탄광과 광산들에 달려가고있다. 그리하여 새해에 들어와 며칠동안에만도 천수백의 석회석을 비롯한 많은 량의 원료와 연료를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생산의 모든 공정을들을 구제적으로 료해하고 수시로 계기되는 정황에 맞게 공장간 면제를 밀접히 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에 한사라 같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원료직장과 카바이드 1, 2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카바이드전기로용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초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새해벽두부터 불길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련합기업소생산의 첫 공격을 지켜낸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로판리, 설비관리를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간지게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면서 질 좋은 생석회와 카바이드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분초를 쫓고있다.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수평방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 12월에 비날론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거둔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새해 첫날부터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 동 석



함남지구관 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함남지구관 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석탄 증산의 불길음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자!》라는 전투적구호에 화답하여 새해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로동자들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으며 양양된 열의가 폭발하여 석탄증산성적으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 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분야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은 적극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새해전투부터 이곳 탄광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잠드리가 만만치 않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아래탄광들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하고들면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

품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설비비용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이 탄광들에 내려가 새해 첫 출근일에 오면 탄부들을 축하해주고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도 안겨주었으며 함께 갱에 들어가 화산식정지사업을 벌리면서 그들을 석탄증산으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고현탄광에서는 년초부터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골질을 앞세워 일일계획을 125%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차령수동부대장으로 하는 김혁청년동지께서는 올해 월 골질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통일갱과 전정갱에서는 운반공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탄자회전율을 높여 새해 첫 전투부터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곳 탄부들은 맡겨진 계획을 수행하고도 스스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음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은 경제선동의 복수로 드세차게 올려 석탄생산투쟁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중요공업지구에 대한 석탄보장을 맡은 운곡탄광에서는 일군들이 앞세워 매 대 소대를 따라 내려가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해설해주면서 탄부들의 열

의를 한층 고조시키고있다.

탄광에서는 70대의 탄차를 새로 만들어 새해에 들어서면서 부족되던 탄차문제를 자체로 분성파에 토대하여 일일계획을 130%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승리갱의 련동굴진소대에서는 새해벽두부터 헌한 투쟁을 벌여 월계획의 20%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에게 뒤집어선 차령 생산증대에서도 일일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전진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수동탄광에서도 일군들이 갱들에 들어가 탄부들과 같이 일도 하면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석탄증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탄광에서는 골질속도에 맞게 동발을 제때에 보장하고 재탄장을 넉넉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내밀어 일일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성내탄광과 둔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비장한 결심을 안고 매일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이곳 탄광들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높은 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재탄장을 넉넉히 확보하고 운반선들에 대한 정비보수에 힘을 쏟고있다.

강성국가건설에 모든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뎌는 심장마다 새겨안고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헌한 투쟁으로 석탄산은 날아갈 듯이 높아지고있다.

리 영 민

란전에 나래치는 비약의 불바람

흥건도간석지건설장에서 7만산, 3만산발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신심드높이 올해전투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5일 흥건도간석지건설장에 7만산, 3만산발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3호제방공사를 적구 내밀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 간석

지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통이 큰 작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중의 정진력을 발동시켜 발파준비를 다그쳤다.

다사, 석회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는 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골질생산과 확대하였다.

이곳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압력상태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

을 받아들여 날마다 골질계획을 2배이상씩 수행하였다.

조각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모든것을 바칠 일념으로 집단적혁신의 불길음을 일으켜 장야실물기와 장야 등을 계획보다 앞당겨 끝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건설자들은 7만산, 3만산발파를 진행한 기세로 뜻깊은 올해를 전성성과로 빛내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힘차게 전진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에서

는 CNC화된 고온공기연소식기열로에 의한 전방적인 압연공정 현대화를 보나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김책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밀어붙여 고온공기연소식기열로가 용을 쓰며 새해벽두부터 압연장관을 쭉 뚫어내는 모습은 불수록 장쾌하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압연공정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어비장군님께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직장에 새로 꾸려진 CNC화된 고온공기연소식기열로를 보시고 김책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만아들답게 금속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대하여 뜻만 만족해 하시면서 전방적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헌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어비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

되어 압연공정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직장의 일군들은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전투조직과 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압연공정을 맡은 작업반들에서는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로동자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생산에서 실지 은 면에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맞게 설비들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기술혁신성과들이 현실에 즉시 도입되어 은을 나타내고 있다.

압연공정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는 속에 만능압연기와 완성압연기를 비롯한 수많은 설비들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여러 생산공정들에 대한 컴퓨터수조종제계가 확립

운영하면서 많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주유, 용수작업반의 작업반원들은 압연공정생산에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누가 보인 달진 설비와 기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에 한몫 이바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현대화된 불연마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불연마의 질을 높이고 용융작업반에서는 못쓰게 된 물들을 되살려 쓸수있게 창발적인 기술혁신투쟁을 적극 내놓아 압연공정의 만가동보장에 기여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음 가열작업반들에서도 세차게 타고나고있다. 특히 가열3작업반원들은 가스 량에 따르는 강연가열로온도조절을 책임적으로 철저히 고온공기연소식기열로가 큰 은을 나타내도록 하고있다.

국가과학원과 리과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자들이 압연공정생산에 과학적으로 민을 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기업소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은 지원이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직장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글 특파기자 리은남 사진 특사기자 김진명



오룡천발전소건설 적극 추진

경 원 군 에 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경원군에서 능력의 큰 오룡천발전소건설을 적극 내밀고있다.

발전능력이 큰 오룡천발전소가 건설되면 군의 지방공업공정들에 전기를 넉넉히 보장해주어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군민의 협동농장들과 경원지구의 탄광들에 전기를 원만히 보충해줄수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전기화를 적극 실현해나가야 하겠습니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

서는 오룡천을 막아 능력이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한 다음 로동조직과 자체보장 사업을 앞세워 공사를 본태있게 내밀고있다.

발전소건설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설지휘부의 일군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많은 일을 해해했다.

군의 책임일군들이 청년동맹대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들끓는 전투현장에 자주 나가 화산식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사를 적극 밀어주고있다.

물길공사에 참가한 청년동맹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미 수백m의 골짜기를 진행한 이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골짜기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연체공사를 맡은 청년동맹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연체초타임을 끝냈다. 현재 총공사량의 80%를 달하는 연체공사를 해해한 이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발전기설공사와 여수공사를 비롯한 전방적인 발전소건설이 미래의 방법으로 동시에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미 수백m의 골짜기를 진행한 이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골짜기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연체공사를 맡은 청년동맹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연체초타임을 끝냈다. 현재 총공사량의 80%를 달하는 연체공사를 해해한 이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공사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발전기설공사와 여수공사를 비롯한 전방적인 발전소건설이 미래의 방법으로 동시에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 총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현지료해

박봉주 내각총리는 비약의 열풍으로 들끓고있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시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골짜기 및 성토 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총리는 회천 5호, 8호, 9호, 11호발전소건설장들을 돌아

보면서 건설실태와 함께 발전능력 등을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이 언급되고 연체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한편 총리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현지료해하였다. 총리는 련합기업소에서 발전

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여 생산을 최대한 높일수있도록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북창지구관 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창립 30돐을 맞는 북창지구관 련합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주재 73(1984)년 1월 6일 북창지구관

북창지구관 광련합기업소 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5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문명화석탄공업상, 홍인범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중앙위원회가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북창지구관 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창립 30돐을 맞는 북창지구관 련합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주재 73(1984)년 1월 6일 북창지구관

북창지구관 광련합기업소 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련합기업소를 창립해주고 온 나라가 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으며 판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기업소를 나라의 위대한 석탄생산기지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 강력한 력량과 기계화수단들을 보내주시고 석탄생산에서 이룩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겠다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석탄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련합기업소가 석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도록 믿음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련합기업소가 창립후 지난 3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위훈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연혁을 새겨오면서 맡겨진 혁명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련합기업소로동계급과 일군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석탄증산으로 만드는 지혜의 전조명이라는 자각을 안고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전력생산을 높이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북창지구관 광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정책적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총성과 애국의 고귀한 땀을 바치며 석탄생산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련합기업소 지배인 신원일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김성일, 남덕량, 김재민, 김명환, 인보현, 최금당, 김경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

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축의 영리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탐사와 골질을 앞세우고 다량채굴, 다량회전을 하며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덕천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선전선에서 더 많은 동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동발나무생산을 늘이기 위한 문제들을 놓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대중을 동발나무증산으로 불러일으키는 화산식정

동발나무생산을 늘인다

지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작업소들과 산지합숙들에 나간 사업소의 일군들은 배낭을 메고 산간에 올라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동발나무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일군들은 새로 생산현장을 옹건 양산작업소의 가파로운 산관을 오르내리면서 실패를

로해하고 돌리대를 무어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맞게 동발나무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작업소의 일군들은 이신작적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현지에 나가 로동자들을 동발나무생산으로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장안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들은 덕천순환구역 가계개체비에서 생산을 적극 다그쳐 더 많은 동발나무를 채남광에 보내주고있다. 이곳 작업소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후방기지를 잘 꾸리고 로동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생산과

수행에 떨쳐나선 그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신상작업소에서 전담원들이 동발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확고한 전방을 열어나가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감에 힘써서 더 많은 동발나무를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특파기자 리혁철

농촌레제 발표 50년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성으로 빛내이자

비약의 기상이 약동하는 들끓는 협동별 재령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서서 혁신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사회주의농촌레제 발표 5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맹세를 안은 재령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걸었다.

첫 전투가 시작된 삼지강, 레밍, 봉천협동농장의 15리 구간의 하천에는 흙갈이와 유기질비료생산원료확보를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 인민반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 불타는 열의가 총망라되어있다.

신년은 봄이 들쭉하게 방충 선전차에서 울리는 전투적호소, 흙을 산더미처럼 싣고 기세 차게 포진으로 향하는 수십대의 트랙터들의 우렁찬 동음은 새해전투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한층 높여주었다.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우신 영상을 우러르며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여 그처럼 젊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눈시울을 적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은 새해의 첫 전투에 펼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 뜨거워 사랑과 믿음이 위훈의 날개가 되어 일군들과 근로자들 모두가 펼쳐나 새해의 첫 전투시작부터 놀라운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원토장 그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올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할수 있다는 신념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새해전투 첫날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삼지강협동농장에 수천 t의 거름을 보내준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 인민반원들이 강바닥흙과기에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레밍협동농장주변의 하천을 타고있는 상업관리소, 직물공장 종업원들은 열이불은 흙을 함마와 정미로 까며비 원토장을 만들고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나갔다.

이들의 드높은 열의가 그대로 불길이 되고 창조의 힘이 되어 작업에 착수한지 불과 몇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많은 개바닥흙을 파내는 혁신적성공이 기록되었다.

이들의 투쟁기세에 고무된 트랙터운전수들은 적재함마다에 흙을 무르기 싣고 협동별로 내달리었다.

그에 뒤집질라 레밍협동농장

의 농장원들은 트랙터로 흙을 나르는것도 성차지 않아 질뿔을 지고 달려었다.

그들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도 등집으로 흙을 저나라 흙갈이를 하였다. 원토보장을 맡아나선 농장원들은 첫날부터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트랙터운전수들은 기계대비를 간직계 하면서 만가동의 흙을 높이 올려나갔다.

협갈이전투는 모든 농장들에서 벌어졌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흙갈이성공과자 올해농사성공이라고 하면서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흙과기전투를 적극 다그쳤다.

특히 김제현, 복지, 동신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많은 거름을 마련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력량을 집중하여 흙과기전투를 적극 다그쳤다.

농장원사회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 하루동안에 많은 흙을 운반하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첫 전투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모란자재를 100% 확보

한 삼지강, 강교, 고산협동농장 농장원들, 원료를 무드기 쌓아놓고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한 유기질복합비료공장과 애국복합비료비료공장의 근로자들...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넘치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고 주타격방향의 제일 앞장에 선 불같은 맹세였다.

그 맹세를 지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보복을 크게 내리고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새해벽두에 제명벌에서 높이 올려라진 총공격의 힘찬 발구름소리!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에 기어이 알곡생산에서 통장훈을 불러 전국의 앞장에 선 신념의 맹세, 결사의 맹세였다.

본사기자 정성일

주타격방향의 첫 돌파구

◇ 천만군민을 격동시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한 농업부문 일군들속에서 한결같이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눈앞이 확 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사회주의농촌레제 발표 5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습니다.》

《풍년열쇠를 틀어쥐고 새해농사치비를 빈틈 없이 갖추는것으로써 주타격방향의 첫 돌파구를 열어나갔습니다.》

농업성 일군들이 아니라,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남다른 긍지를 안고 새해농사치비에 한사같이 펼쳐나갔다.

◇ 주타격방향의 첫 돌파구는 농사치비를 잘 하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농촌들을 찾으실 때마다 농사치비를 잘하여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거름더미는 곧 쌀더미라고 강력히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농사치비를 잘하는것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데서 나오는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농사치비에서 기본은 거름생산이며 여기에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씨뿌리기까지 시간이 길다고 하면서 거름을 늦추면 거름생산실적을 일탈할수 없도록 늘일수 없고 결국에는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의 하루하루를 불철영농공정을 수행할 때처럼 드바며 보며만 당면한 농사치비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올해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포진마다 높이 쌓아놓은 거름더미로 대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여야 한다.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은 올해농사운영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거름생산과 운반전투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 농장일군들은 토양분석실험을 놓고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하여 필지별, 포진별로 구색이 맞게 내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하여야 한다. 혁신적안목으로 걸린 문제를 찾아 제때에 풀어주면서 농기계수리비와 모란자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내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누구나 땅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니란이나 개바닥흙, 린회토를 비롯한 원료원천을 적극 찾아내어 흙갈이를 대대적으로 하며 후반전, 이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같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 열두바닥과기과 거름생산에도 힘을 넣는것과 함께 트랙터와 지대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운반수단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구식된 곳의 포진에서부터 거름을 실어내야 한다.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기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가두인민반원들은 농업전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펼쳐나 생산한 도시거름과 영농물자를 일일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모두가 사회주의농촌레제 발표 5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만풍년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힘차게 펼쳐나 농사치비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알곡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레제의 정당성과 활력을 뚜렷이 실증할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에 열정의 나래,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필지를 바르고있는 서해벌농촌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지력높이기에 선차적힘을

운전군에서

운전군안의 농장원들이 새해 농사치비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새해에 들어와 첫 이틀동안에 군으로 수십정보의 논흙갈이를 진행하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치비를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은 군의 일군들은 흙갈이전투목표를 높이 크게 세웠다.

군당위원회는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이 흙갈이계획을 명백히 주고 력량을 집중하여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평도업적단위들이 새해농사치비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걸었다.

운하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필지별 토양분석자료를 기초하여 흙갈이목표를 면밀하게 세우고 새해벽두부터 힘찬 투쟁을 벌리었다. 날씨가 추운 조

건이지만 이들은 올해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지만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질 좋은 개바닥흙을 파내어 논밭에 듬뿍 내었다.

이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농장에서는 새해 첫 하루동안에 9정보이상의 논흙갈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백두산건설위원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보석협동농장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기세에 맞게 지력을 높이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갔다.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토양의 특성에 맞게 흙갈이를 잘하여야 지력을 높여 농작물에 좋은 생육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원토장을 바로 정하고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매일 2정보이상의 흙갈이를 해제하고있다.

이 농장들의 뒤를 따라 다른 농장들에서도 힘찬 전투를 벌리고 있다.

덕원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흙갈이전투의 첫 날부터 기세를 올리면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특히 농장에서는 초기생육이 좋지 않은 논들에 대한 흙갈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많은 면적의 포진에 흙갈이를 하였다.

그러하여 군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이상 많은 면적에 흙갈이를 진행하였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새해농사를 위한 중소농기구준비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특히 제기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달지 못할 농장원들의 농장원들에게 대한 수리를 앞세우도록 하였다. 신식농기구가 펼쳐나선 농장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의욕과 힘을 합쳐가며 중소농

중소농기구준비에 힘을 넣는다

평성시 자산협동농장에서 중소농기구준비를 하고있다.

한해농사에서 중소농기구준비가 갖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농장일군들은 이 사업을 미루려 실수있게 진행하였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새해농사를 위한 중소농기구준비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특히 제기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달지 못할 농장원들의 농장원들에게 대한 수리를 앞세우도록 하였다. 신식농기구가 펼쳐나선 농장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의욕과 힘을 합쳐가며 중소농

기구수리에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결과 달지구, 삼, 쇠소갈, 걸이대를 비롯한 갖가지 중소농기구가 충분히 마련되고있다.

중소농기구준비가 잘되는것만큼 농사치비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작업이 오히려 쉬워졌다.

제2작업반에서는 중소농기구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매일 많은 거름을 포진에 실어내고있다.

제3, 4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도 중소농기구의 리용률을 높여 거름실어내기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황철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전투를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변혁기틀 열어놓아야 합니다.》

환희와 격정속에 1월의 하루 하루가 흐르는 요즘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있는 자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있는가 하면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불고있는 과학농사 열풍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내가 찾았던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서도 새해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농민들이 자들의 미더운 모습은 감동없이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떻게 되어 이런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농장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헌리길도 한결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해의 첫걸음을 의미있게 떼고있을뿐입니다.》

첫걸음! 보복으로야 얼마나 되랴. 하 생각이 깊어졌다. 농업생산에

지만 소박한 그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쿵 울려주었다.

나는 달아오르는 가슴에 첫걸음의 보복을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값있는 무기로 안아보았다. 그러다보니 새해 첫걸음을 의미있게 내걸은 조국의 대지에 애국의 나래를 풍어주는 수많은 농업근로자들의 열정에 넉넉한 모습이 떠올랐다.

수필

새해의 첫 걸음

결승선을 향하여 내걸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첫걸음은 농업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국의 변혁기를 열어나가는 전진의 큰걸음, 승리의 첫 자욱이다.

본사기자 윤용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일성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5일 오가미 경이적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세계자주화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흙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필사를 우러르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일성동지께서 생건의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의군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정주철도주력건설대

정주철도주력건설대 3소대는 소문없이 일할하는 집단, 화목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랑 떨치고있다.

지난해 년간계획을 건설대적으로 제일먼저 넘쳐 수행한 소대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올해전투에서도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인 달지 않나, 앞아수준건설! 목욕하기가 맑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디.》

몇해전 소대장으로 임명된 리원철동무는 당의 믿음과 기대에 더 많은 일을 하는것으로 보답하려하는 불같은 맹세를 다지었다.

소대장으로 일해오고있는 기간 그는 소대원들의 가슴속에 집단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무슨 일에서나 제 한몸을 먼저 내대고 대오의 기수가 되어 소대에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는 그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일본색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리원철동무는 대상들에 맞는 여러가지 건설방법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 머리를 쓰며 사재를 거둬왔으며 필요한 자재들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불꽃튀는 투쟁을 벌려왔다. 그래서 그의 소대는 언제나 건설대의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늘 일감을 안고 이익하게 뛰어나는 그를 보며 안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권고하자 리원철동무는 이

소대장 리원철동무

렇게 말하였다.

《나야 지휘관이 아니요. 남보다 잠도 적게 자고 휴식도 덜 할줄 알아야 지휘관직임을 바로 할수 있지 않겠소.》

리원철동무는 이렇게 강의한 의지와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해마다 맡겨진 전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소대를 공격정신이 확 들어간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훈련시켜나갔었다.

그는 소대원들을 친형제처럼 여기며 뜨거운 인정미로 그들이 자기가 맡은 몫을 다 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세로동반건설에 동원된 소대원들의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에서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준것을 비롯하여 그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연제인이 소대의 한대원이 앓을 때에 그를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 기수가 낮은 동무에게는 차근차근 일도 배워준 사실, 힘들어하는 대원이 있으면 친형의 심정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등 리원철동무가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기울인 진정성은 소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자로 적극 고무해준다.

어떤 어려운 과업이 맡겨져도 무조건 해내야한다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는 집단, 락천적이고 승벽성이 센 소대, 그 앞장에는 언제나 리원철동무가 서있다.

오늘도 그는 대오의 앞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소대원모두를 힘있게 이끌고있다.

본사기자

에스빠나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에스빠나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에스빠나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

대사로 김혁철동지가 임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지열에 의한 팽만방화 실현

정방산 종합식료공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운전, 지하수, 지열탐사를 적극 벌려 지하수와 지열자원을 다 찾아내어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생산현장에 앞장서서 지열에 의한 팽만방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 받아들인 앞은총지열에 의한 팽만방화 체계는 팽만수공급방식이다.

공장에서는 순환펌프를 리용하여 땅속 2.5-3m의 깊이에 묻은 판으로 외부순환계통(건물비갈)의 물을 순환시켜 온도를 8°C로 끌어올리었다.

그리고 내부순환계통(건물원)에서 순환하는 물은 열병동(원)을 리용하여 온도를 45°C까지 높여주었다.

그 열을 리용하여 겨울철 생

산현장의 온도를 평균 18°C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와 반대과정으로 생산현장의 온도를 평균 23°C로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다.

앞은총지열에 의한 팽만방화 체계는 소비전력이 낮아 매우 경제적이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생산현장에 팽만방화 체계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갔다.

백두산건축연구원 실장 최홍하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방조밑에 앞은총지열에 의한 팽만방화 체계 받아들이는에서 나오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서인육, 류순길동무를 비롯한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을 내밀면서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방대한 물관설치공사를 한주일동안에 해제하는 혁신을 일었다. 이와 함께 물걸레를 벌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설비조립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모든 공사를 끝내고 팽만방화 체계의 첫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결과 생산현장의 로동환경이 훨씬 좋아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지금 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 팽만방화 체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지열에 의한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의 팽만방화를 적극 다그쳐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글씨 사인 특파기자 김천일



높은 훈련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판차체 육단에서- 본사기자 김중훈



정방산 종합식료공장에서 지열에 의한 팽만방화 실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진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

2014년 새해의 조국통일전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겨레의 앞길에 승리의 기치가 새차게 나뭇기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투쟁으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무한히 고무된 해외의 각계계 동포들은 신심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유산을 관철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떨쳐나선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산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할 의의있는 해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헌에 생애의 마지막필을 남기시였다.

조국통일유산을 실현하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4년 6월 중순 조국통일운동에서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진행할 데 대한 대응안을 내리시였다.

평양으로부터 평壤을 통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며 온 겨레에게 통일을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4년 7월 7일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중대문헌에 력사적인 존엄성을 남기시고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는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유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대에 두차례에 걸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자주통일의 표대로, 새 세기 평화번영의 리정표로 세워주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북남선언들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하게 되었으며 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6.15통일시대의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민족에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제적력량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조선로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반세기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추호도 어그러짐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근본조식이며 지난 시기 북과 남이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

의 통일원칙이다.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도, 북남선언들에서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도 민족자주를 근본방장으로 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적 보나 성격에 있어서나 자주를 떠나서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다름아닌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은 응당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그 주인인 조선민족을 제쳐놓고 그 어떤 외세가 대신하여 해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민족자주권에 속하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풀어나갔다는것자체가 자기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지 못하는 표현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리의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힘은 통일이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누구보다도 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다. 우리 민족은 민족문제를 능히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문명한 민족이다. 민족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에 의지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철저히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은 민족자주를 위한 근본원칙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에 설 때에만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요구와 리의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민족적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오락가락에 맡기려는 수직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근 70년전에 달하는 분렬의 비극사가 보여준것은 외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이 아니라 분렬과 대결만을 추구하였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으로 가슴벅차던 6.15통일시대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던 대결시대의 판이한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의 림장이며 자주통일의 근본원칙이라는것을 응연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에 서서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북과 남은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철저히 옹호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갈 때 한 북남관계의 과욕을 가지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진기를 열수 있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것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방장이다.

평화수호투쟁은 우리 민족이 대대손 살아가야 할 삼천리조국토, 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지난해 미국과 남조선피괴죄관

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기도를 로발하면서 핵전략목적과 핵행공모합 등 핵전쟁장비들을 조신반도와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핵전쟁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였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강행된 전쟁불장난소동은 우리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왔으며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냈다.

남조선피괴죄관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북핵선제타격공작본인 맞춤형핵전략이라는것을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한 《킬체인》과 피씨일일어체계구축에 열을 올림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엄중히 위협하였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의 불씨가 터지면 그것은 지난 조선전쟁 때와도 다를수 없는 엄청난 핵전쟁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핵공포를 뒤따르는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관한 시키어야 할것이다. 온 민족이 반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피괴죄관들의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 무력증강행동을 철저히 반대하며,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지로 되는 남조선의 비군을 물러나게 하는 투쟁의 불꽃을 세계까지 지펴올려야 한다.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전진을 이룩하는데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담

【평양 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정초부터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온 겨레와 전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조선반도평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는 평화적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노력과 확고한 의지, 온 민족의 단결을 반영한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그에 정반대되는 상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말들이 더욱 우습하게 튀어나오고 《윤정》이나, 《경연》이라는 대결판판속에 피괴죄관공공과 해병대까지 내몰아 총포탄을 쏘아대며 화약대 풍기는 북핵전쟁연습이 미친듯이 강행되고있다.
지어는 우리의 선의에 대해 《진정성》이나, 《양면전술》이나 뽀니 하며 함부도 모독하는 험담들이 마구 쏟아져나오고 있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정당한 태도에 대해 대미결락과 반공화국핵공조를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선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데 대한 요구에 호전적전진과 도발적인 전쟁연습발장단으로 《화장》 해사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비방수정을 중지하자는 호소에 악의에 찬 비방수정에 더욱

더 매달리는것으로 도견해나서는것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이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표출만지도 없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가겠다는것이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새해에 들어와 보여준 북과 남의 판이한 두 림장과 태도는 북남관계를 과욕에 몰아넣고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속이 시꺼매가지고는 아무리 미사리구를 늘어놓아도 끈이들은 사람이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했든대 대결적립장과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될수 없다.
앞으로 북남관계개선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일부군청노동자들에대해해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집회

전면전을 가상한 북침전쟁연습 감행

남조선피괴죄관 17사단이 2일 인천과 경기도 김포, 부천지역에서 전면전을 가상한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피괴죄관들은 그 누구의 《대남도발위협중대》를 떠들며 전투참모단을 구성하여 지휘통제구호훈련을 실시하였다.
전술훈련과 포를 비롯한 각종 화력무기의 전투사격훈련에도 열을 올렸다.
한편 남조선 《현황뉴스》에 의하면 피괴죄관 28사단은 경기도 동두천, 연천일대에서 6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할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피괴죄관들은 그 누구의 《침투 및 국지도발》을 떠들며 2월 14일까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후한전술훈련을 벌이며 회색하고있다.
이에 앞서 새해 첫날 피괴죄관 대대조선선에서 백성들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연습에 광분하였다.
피괴죄관들은 새해벽두부터 최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전쟁소동에 매달리며 정세를 위기로 몰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치솟는 울분, 더욱 고조되는 총파업투쟁

새해에 들어와서도 민주로총의 파업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민주로총은 지난해 12월 28일의 1차 총파업에 이어 새해 1월 9일에 2차 총파업을, 16일에 3차 총파업을 벌일것을 결의하고 자기 산하 모든 조직을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시켰다. 또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위원회참가를 중단한다는 뜻을 선언하였다.
앞서 전진과 같이 지난해 12월 22일 남조선당국은 무장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에 대한 강제집행 압수수색소동을 벌여놓고 최후까지 쏘아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하였다.
합법적인 노동운동단체에 대한 당국의 무자비한 폭압만행에 격분한 민주로총은 즉시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며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힘 전진자의 취입 1년이 되는 오는 2월 25일까지 투쟁을 중단할의 없이 완강하게 밀고나가며 더욱 확대강화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지난해 12월 28일 남조선에서 벌어진 민주로총의 1차 총파업투쟁은 각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날 민주로총은 남조선로총과 연대하여 서울시청광장에서

수만명의 조합원들과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민영화 저지! 로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소지! 민주로총 총파업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회를 앞둔 남조선로총위원장들은 독재를 깨뜨리려고 이 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웨치며 맹목적인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어 그는 민주로총에 대한 탄압은 민중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면서 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이 세상에 없다. 결국 퇴진될것은 박근혜 《정권》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이 시각부터 민주로총산하 모든 조직들이 일사부응을 중단하고 투쟁준비를 갖추며 다음해 2월 25일에는 투쟁의 합성으로 전력을 혼들어놓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로총위원장도 민주로총에 대한 당국의 탄압만행을 폭력만행으로 판인하면서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로동운동을 탄압하는 《정권》과의 투쟁에서 남조선로총과 민주로총은 하나이고 강요하면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일 의지를 표적하였다.
대회에서는 《정권》퇴진을 위한 총파업투쟁을 벌릴것을 다짐하는 민주로총이 로조위원장들의 결의문이 낭독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12월 31일과 새해 1월 3일 대중

총은 새해에 들어선 지금도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고있다. 오히려 민주로총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1월 2일 민주로총위원장들은 지난해 12월에 있는 민주로총에 대한 집권세력의 파쇼적 탄압을 결코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민주로총과 민주주의에 개해지는 탄압과 분노는 기억하면서 총파업을 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민주로총인사들은 집권자의 퇴진과 정보보안체계개선 등에 대한 투쟁집시를 요구하며 분노를 표적하였다. 그들은 민주로총에 대한 유린은 남조선의 《경제 로동자와 민중의 심장을 유린한것》으로서 용납할수 없다. 《올해는 《정권》과의 전면전을 실행하는 해》라고 웨치면서 곱합없는 투쟁의지를 표적하였다.
이어 그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로총은 이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월 9일 강도 높은 2차 총파업투쟁을 벌릴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야만적인 탄압과 기만책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고 있는 민주로총의 강경한 태도 《정부》로총은 반역적인 《정권》을 거어내기 위해 전면전을 벌일것을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장윤남

소원령의 선경마을 위원군 고보협동농장을 돌아보고

위원군 고보리는 철도에서 도 백수십리나 떨어진 두메산골이다.
침철막막이 산발을 몇번이나 감돌아서야 우리는 고보협동농장을 맞이하는데 눈앞에 굽어보이는 명마루에 울라설수 있었다.
그곳에 새겨진 글발이 유난스레 눈길을 끌었다.
소원령, 과연 어떤 절절한 소원이 이 명마루에 새겨져있는것인가. 농장에 들어서서 우리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잘하여 우리 나라의 농촌을 말 그대로 모두가 부리워주는 인민의 낙원으로, 모든 농촌마을을 일하기에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산골짜기에 오목하게 자리잡은 농장마을은 첫눈에 정이 든 고장처럼 안겨왔다.
마을입구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새겨진 영생탑이 한눈에 안겨왔다.
키앗은사파나무며 감살구나무, 포도넝쿨로 둘러싸인 아

담한 문화주택들이 산기슭을 따라 규모있게 늘어섰고 특색있게 건설된 은덕원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도 주변의 경치와 어울려 산촌의 류다운 정서를 자아내고있다.
《우리 고보리사람들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자기들의 고향이 제일이라고 누구나 자랑합니다.》
마을어귀에서 우리와 만난 농장관리위원이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의 옆얼굴은 자기 농장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그가 들려준 고보리의 자랑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리는 농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백명능력의 고보정년밭 전소를 건설하여 농장원세대를 위한 물리공공건물들이 필요요한 전기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한해 농장원들의 소생활생산지지를 일떠세워 농장에서 쓰는쓰고도 남아군의 다른 협동농장들에게까지 소생활을 보내주었다.
여기저기 있던 살림집과 딸

밭들의 비옥분조들과 농장원세대에들 정성으로 공급준준과도 자랑을 펼쳐놓던 작업반장은 우리를 청년요소작업반으로 이끌었다. 수백마리의 염소를 기르고있는 청년염소작업반의 고기와 청생산양이 대단하였다.
작업반장의 말을 듣고보니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고 기뻐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듯하였다.
농장에 꾸러진 한해 수만대능력의 기와생산기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향상되는 농장생활을 엿볼수 있었다.
어려대의 공작기계를 갖추어 놓고 필요한 농기계부속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생산하고있는 기계화작업반의 수리직하는 군적으로도 손꼽힌다고 한다. 자체로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진행하고는 발걸음부터 가을걷이에 이르는 모든 영농작업에서 기계화중을 훨씬 넘어가니 산골농장원들의 로동생활이 어찌 흥겹지 않을수 있랴.
우리가 들린 농장의 종축작업반에는 어미돼지만도 백수십마리나 있었다.
해마다 800여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여 농산작업

는 곳마다 중수형발간소를 건설하도록 따듯이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손길아래 두메산촌의 우리 농장이 이렇게 천지개벽되었습니.
우리 자강도인민들을 위해는 보라새한 험한 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니 어머니장군님께 두메산촌에 펼쳐진 이 전경을 보여드리고싶은것이 저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해전 저희들은 농장마을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여기 제일 높은 명마루까지 수km의 도로를 새로 내고 《소원령》이라는 글발을 새겼습니. 저희들은 어머니장군님께 못다한 충정을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을 굳건히 받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소원령!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기들이 사는 고향마을 로동당민소들이 더 높이 올려뜨리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꽃피워갈 고보리인민들의 불타는 맹세도 그 부름에 뜨겁게 답하게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보협동농장의 폐일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소원령마루를 더욱 붉게 휩싸안는 모습을 위해 담겨져 우리는 이곳 농장을 떠났다.
뚜껑까지 동세



경에 넘쳐 말하였습니.

우리의 군대가 제일

그러나 문둥군인들이 저희들에게로 달려오는것이였습니다. 우리가 영애군인공정준엄원들이라는것을 알게 된 지휘관들은 즉시 차수리를 조직하는것이였습니다. 더우기 가슴이 뜨거웠는 우리에게 인제한 수리원차의 운전원이 이 생겼습니. 인제드문 강원평의 위전도 로에서 차가 고장났던것이였다.
남은 걸점 밟아오지, 가까이에는 차를 수리할만한 기업을 가는데 뛰어들지 않지, 하여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에 넘쳐 말하였습니.

우리는 그 고대인민들의 이름도 모르고 해역전진이 아쉬웠습니. 후애야 그들이 희망 농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무공군인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
우리 공장원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군인들의 투쟁기쁨을 본받아 새해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투쟁에서 더 큰 위훈을 창조할것을 굳게 결의하고있습니.
배천영애군인식료공장
지배인 김남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 나가려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 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통찰력을 기초한 말씀에는 강력한 자위적억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려는 김정은동지의 드림없는 의지가 백박하고있다.

강력한 자위적힘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운명이고 존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약속은 막강한 권력에 있다. 이것은 역사와 존엄의 시련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당당히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강력한 자위적힘, 전진적억력이 있기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은 적들의 온갖 침략행동을 결연히 저지시키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었다.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끈질기고 발악적인 책동은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힘앞에서 물거품이 되였다.

지난 1년간의 정세흐름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해에 국

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전진적억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특히 세계최대열강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미국은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켰다. 우리의 평화적외교정책을 《장거리미사일발사》로 몰아붙이고 여론화해오며 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발동하여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이익이 깎이는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었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책동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물리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전진적억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공작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인 전진적억력의 위발침입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오세 날을 따라 새롭게 번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 갔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책동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물리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전진적억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공작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인 전진적억력의 위발침입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오세 날을 따라 새롭게 번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 갔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책동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물리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전진적억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공작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인 전진적억력의 위발침입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오세 날을 따라 새롭게 번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 갔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책동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물리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전진적억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공작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인 전진적억력의 위발침입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오세 날을 따라 새롭게 번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 갔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책동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물리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전진적억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공작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인 전진적억력의 위발침입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오세 날을 따라 새롭게 번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 갔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책동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물리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였다. 사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써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면서 평안한 사회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는데는 비관하지 않았다.

민족적단합으로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자

아프리카나라 대통령들의 신년사

아프리카나라 대통령들이 새해 2014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가나대통령 존 드라마니 마하마는 신년사에서 정부가 새해에 도시교통망과 항정선, 항공운송, 에베르스트 등 분야에서 근본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며 이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앙골라대통령 주체 에두아르 두 투스 켈루스는 지난해 정부가 사회적인정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특히 청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청년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새해에도 그들이 체육과 예술, 문화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줄것이라고 밝혔다.

말라위대통령 조이스 반디는 모든 사람들이 헌법과 법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공무원들속에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민족적단합을 위해 헌신하는 기풍을 확립하는것을 새해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모리셔스대통령 라즈케시우르 푸라지는 교육이 나라의 여러 중요한 경제영역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잘 배합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방침을 천명하였다.

콩고대통령 페니 싸수 누게소는 지난해 자기 나라가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공업을 현대화하는데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진보를 다그치는데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정부가 새해에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이지리아대통령 곤라크 에벨레 조나란은 정부가 새해에 전력공급부족을 현대화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예방치료에 힘을 넣으며 기초교육 유무문을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게 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전체 인민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굳게 단합할것을 호소하였다.

우간다대통령 윌리엄 카우라 무제베니는 지난해에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고 철도, 도로 등 하부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새해에도 부를 창조하고 사회적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인민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베네네대통령 토마 보니 야이는 극단적인 아마도민족주의에 빠져 침략책동에 미쳐날뛰다가 개국음을 당한 전정평민사들이다. 력사의 시공창에 착박한 민족주의자들의 망명을 되살려 제정의 사상정신적기틀을 마련하는데는 력대 일본정부가 내세운 정치선조였다. 아베 역시 야스쿠니진자참배를 통한 침략사상주입을 중지하였다.

사실 아베로서는 집권하자마자 야스쿠니진자를 달랠려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것이다. 그러나 부처지는 내외로운 항의의 구란이 비처져 감히 집권자발견을 풀리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어쩔이 커져 직접 수상의 신분으로 빠졌이 야스쿠니진자를 참배함으로써 세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아베의 야스쿠니진자참배는 아시아나라 인민들과 세계를 향해 던진 제2의 침략전쟁선언이나 다를바 없다. 지구 세계가 그의 야스쿠니진자참배를 두고 물뿜듯 하고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여 일본집권자가 야스쿠니진자를 아무 거리낌없이 참배한다는 국제정의를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인류의 량심에 대한 반목한 우롱이라고 단죄하고 있다.

중국의 교부장은 자국주제 일본대사를 호출하여 과거 문제에 대해 회의를 입은 나라

가스공업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블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가스공업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가스생산량을 늘여 나라의 공업화과업을 위한 힘 수행할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가스공업발전을 담보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요르단계곡에 대한 이스라엘군주둔제의 배격

팔레스타인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야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요르단계곡에 대한 이스라엘군주둔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제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그 무슨 안전보장을 구실로 팔레스타인독립국가창건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려는 미국의 제안은 팔레스타인평화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주둔을 장기화하고 팔레스타인독립국가창건을 지연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리익을 대변한것으로서 팔레스타인이나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지하철도의 패열을 난방보장에 리용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지하철도에서 나오는 패열을 리용하여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스웨덴과 지하철도차가 운행하는 열 등에 의해 지하철은 1년내 14~20°C로 따뜻한 기후 유지되고있다. 이 열을 열교환기에 보낸 다음 배관을 통해 린집한 건물들에 가열해 할수 있다.

폭풍과 해

에스도니아에서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15명의 생명을 잃었다. 시속 115km의 강한 폭풍으로 지난해 12월 13일 현재 6만 4천 명이 집을 잃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아베가 과거에 수상으로 있을 때 진자를 참배하지 못한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는데에 주목하면서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외교인보 정책을 지지해온 미행정부의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도이쉴랜드를 비롯한 서방의 주요언론들도 아베의 야스쿠니진자참배를 속보로 전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외교적도발행위로 규정했다.

일본국내의 반발 또한 간단치 않다. 공명당, 민주당, 공산당이 비롯한 일본의 여러 정당들이 아베의 이번 처사에 일제히 반발해 나서고있다. 얼마전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7.1%가 아베의 진자참배를 부정적로 평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9.8%는 아베가 진자참배로 초래될 외교적문제들을 심중히 따져봐야 했을것이라고 밝혔다.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일본이 야스쿠니진자참배를 옹호하는 비단과 함께, 국제적으로 린범이라는 것이다. 일본집권계층이 야스쿠니진자를 통한 군국주의사상교위예열을 율릴수록 자멸의 길을 재촉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의교부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과 관련한 일본과 미국의 그릇된 린장을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수상과 내각판방장관이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을 비난하고 미국부장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고 관련하여 그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반항공식별구역을 설정한데 대해 가깝하고 다른 나라들은 설정해도 되고 중국은 그렇게 해서 는 안된다면 국제적인 공인된 법칙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국가주권의 평등은 또 어디에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그는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이 지역의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말은 완전히 무근거였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흑백을颠倒하여 나쁜 마음을 먹은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레바논에서

레바논군사령관이 얼마전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공격도 물리칠 자기 나라의 린장을 표명하였다.

레바논군대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만일 적들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다면 단번 격을 가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의 이슬람교혁명군위대총사령관이 최근에 있는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리익이 강화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란정부와 인민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국력은 단순한 군사적위력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는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인권유린왕초가 받는 응당한 대접

요즘 정탐모략의 왕초인 미국이 도청추문사건때문에 인륜으로 얻어맞고나 정신차리게도 없었다. 돌도 없는 동맹자인 이스라엘까지 미국대군이 나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방 및 외교외무에 대한 정탐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오왔다. 과연 이것이 서로 맞들기를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이것은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성명을 통해 미국기간정보장국의 정탐행위에 대해 폭로한것이다. 인연이 깊은 동맹자도 몰라보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도청대상으로 삼아들이고 하는 벨풀이다.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에델론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에델론은 맹정시기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설립한 전자도청계의 암호명이다. 자르에 의하면 에델론 전자도청체계는 120개의 정탐위성을 가지고 1시간동안에 무려 1억 8000만건의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전자도청체계의 의거하여 지상과 지하, 바다면, 우주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로물적으로 진행하였다. 맹정초기에 설립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흑화되어 있고 감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초대국》이랍시다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손아래동맹자한테서 자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를 탓할까? 못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골짜기 때려대는데 동맹국들이 동반자요 하는것이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도청사실을 통하여 만만치않게 드러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의교부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과 관련한 일본과 미국의 그릇된 린장을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수상과 내각판방장관이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을 비난하고 미국부장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고 관련하여 그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반항공식별구역을 설정한데 대해 가깝하고 다른 나라들은 설정해도 되고 중국은 그렇게 해서 는 안된다면 국제적인 공인된 법칙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국가주권의 평등은 또 어디에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그는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이 지역의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말은 완전히 무근거였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흑백을颠倒하여 나쁜 마음을 먹은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레바논에서

레바논군사령관이 얼마전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공격도 물리칠 자기 나라의 린장을 표명하였다.

레바논군대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만일 적들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다면 단번 격을 가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의 이슬람교혁명군위대총사령관이 최근에 있는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리익이 강화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란정부와 인민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국력은 단순한 군사적위력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는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인권유린왕초가 받는 응당한 대접

요즘 정탐모략의 왕초인 미국이 도청추문사건때문에 인륜으로 얻어맞고나 정신차리게도 없었다. 돌도 없는 동맹자인 이스라엘까지 미국대군이 나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방 및 외교외무에 대한 정탐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오왔다. 과연 이것이 서로 맞들기를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이것은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성명을 통해 미국기간정보장국의 정탐행위에 대해 폭로한것이다. 인연이 깊은 동맹자도 몰라보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도청대상으로 삼아들이고 하는 벨풀이다.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에델론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에델론은 맹정시기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설립한 전자도청계의 암호명이다. 자르에 의하면 에델론 전자도청체계는 120개의 정탐위성을 가지고 1시간동안에 무려 1억 8000만건의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전자도청체계의 의거하여 지상과 지하, 바다면, 우주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로물적으로 진행하였다. 맹정초기에 설립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흑화되어 있고 감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초대국》이랍시다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손아래동맹자한테서 자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를 탓할까? 못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골짜기 때려대는데 동맹국들이 동반자요 하는것이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도청사실을 통하여 만만치않게 드러나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에델론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에델론은 맹정시기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설립한 전자도청계의 암호명이다. 자르에 의하면 에델론 전자도청체계는 120개의 정탐위성을 가지고 1시간동안에 무려 1억 8000만건의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전자도청체계의 의거하여 지상과 지하, 바다면, 우주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로물적으로 진행하였다. 맹정초기에 설립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흑화되어 있고 감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초대국》이랍시다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손아래동맹자한테서 자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를 탓할까? 못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골짜기 때려대는데 동맹국들이 동반자요 하는것이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도청사실을 통하여 만만치않게 드러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의교부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과 관련한 일본과 미국의 그릇된 린장을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수상과 내각판방장관이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을 비난하고 미국부장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고 관련하여 그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반항공식별구역을 설정한데 대해 가깝하고 다른 나라들은 설정해도 되고 중국은 그렇게 해서 는 안된다면 국제적인 공인된 법칙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국가주권의 평등은 또 어디에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그는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이 지역의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말은 완전히 무근거였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흑백을颠倒하여 나쁜 마음을 먹은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레바논에서

레바논군사령관이 얼마전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공격도 물리칠 자기 나라의 린장을 표명하였다.

레바논군대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만일 적들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다면 단번 격을 가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의 이슬람교혁명군위대총사령관이 최근에 있는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리익이 강화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란정부와 인민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국력은 단순한 군사적위력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는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인권유린왕초가 받는 응당한 대접

요즘 정탐모략의 왕초인 미국이 도청추문사건때문에 인륜으로 얻어맞고나 정신차리게도 없었다. 돌도 없는 동맹자인 이스라엘까지 미국대군이 나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방 및 외교외무에 대한 정탐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오왔다. 과연 이것이 서로 맞들기를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이것은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성명을 통해 미국기간정보장국의 정탐행위에 대해 폭로한것이다. 인연이 깊은 동맹자도 몰라보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도청대상으로 삼아들이고 하는 벨풀이다.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에델론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에델론은 맹정시기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설립한 전자도청계의 암호명이다. 자르에 의하면 에델론 전자도청체계는 120개의 정탐위성을 가지고 1시간동안에 무려 1억 8000만건의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전자도청체계의 의거하여 지상과 지하, 바다면, 우주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로물적으로 진행하였다. 맹정초기에 설립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흑화되어 있고 감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초대국》이랍시다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손아래동맹자한테서 자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를 탓할까? 못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골짜기 때려대는데 동맹국들이 동반자요 하는것이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도청사실을 통하여 만만치않게 드러나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에델론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에델론은 맹정시기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설립한 전자도청계의 암호명이다. 자르에 의하면 에델론 전자도청체계는 120개의 정탐위성을 가지고 1시간동안에 무려 1억 8000만건의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전자도청체계의 의거하여 지상과 지하, 바다면, 우주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로물적으로 진행하였다. 맹정초기에 설립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흑화되어 있고 감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초대국》이랍시다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손아래동맹자한테서 자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를 탓할까? 못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골짜기 때려대는데 동맹국들이 동반자요 하는것이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도청사실을 통하여 만만치않게 드러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의교부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과 관련한 일본과 미국의 그릇된 린장을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수상과 내각판방장관이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을 비난하고 미국부장관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고 관련하여 그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반항공식별구역을 설정한데 대해 가깝하고 다른 나라들은 설정해도 되고 중국은 그렇게 해서 는 안된다면 국제적인 공인된 법칙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국가주권의 평등은 또 어디에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그는 중국의 반항공식별구역설정이 지역의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말은 완전히 무근거였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흑백을颠倒하여 나쁜 마음을 먹은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레바논에서

레바논군사령관이 얼마전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공격도 물리칠 자기 나라의 린장을 표명하였다.

레바논군대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만일 적들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다면 단번 격을 가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에서

이란의 이슬람교혁명군위대총사령관이 최근에 있는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리익이 강화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란정부와 인민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국력은 단순한 군사적위력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는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인권유린왕초가 받는 응당한 대접

요즘 정탐모략의 왕초인 미국이 도청추문사건때문에 인륜으로 얻어맞고나 정신차리게도 없었다. 돌도 없는 동맹자인 이스라엘까지 미국대군이 나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방 및 외교외무에 대한 정탐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오왔다. 과연 이것이 서로 맞들기를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이것은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성명을 통해 미국기간정보장국의 정탐행위에 대해 폭로한것이다. 인연이 깊은 동맹자도 몰라보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도청대상으로 삼아들이고 하는 벨풀이다.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에델론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에델론은 맹정시기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설립한 전자도청계의 암호명이다. 자르에 의하면 에델론 전자도청체계는 120개의 정탐위성을 가지고 1시간동안에 무려 1억 8000만건의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전자도청체계의 의거하여 지상과 지하, 바다면, 우주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로물적으로 진행하였다. 맹정초기에 설립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흑화되어 있고 감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초대국》이랍시다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손아래동맹자한테서 자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를 탓할까? 못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골짜기 때려대는데 동맹국들이 동반자요 하는것이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도청사실을 통하여 만만치않게 드러나

미국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정탐행위를 벌린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에델론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에델론은 맹정시기 이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설립한 전자도청계의 암호명이다. 자르에 의하면 에델론 전자도청체계는 120개의 정탐위성을 가지고 1시간동안에 무려 1억 8000만건의 정보자료를 수집할수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은 전자도청체계의 의거하여 지상과 지하, 바다면, 우주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탐모략활동을 로물적으로 진행하였다. 맹정초기에 설립된 때로부터 철저한 극비대상으로 흑화되어 있고 감시활동을 중지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초대국》이랍시다 거들먹거리던 미국이 손아래동맹자한테서 자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누구를 탓할까? 못된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골짜기 때려대는데 동맹국들이 동반자요 하는것이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도청사실을 통하여 만만치않게 드러나